

〈번역〉

조지오웰의 「1984」에 관한 에리히 프롬의 跋文

韓 昌 榮* 譯

조지 오웰 (George Orwell)의 「1984」이라는 作品은 心的狀態를 表現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의 警告하는 作品이다. 그 作品이 表現하는 心的狀態는, 人間의 將來에 관한 거의 切望에 가까운 것이고 그 警告란, 歷史의 過程이 變하지 않는 限, 全世界의 人間은 그네들이 人間다운 質을 喪失할 것이고, 魂이 없는 自動機械가 될 것인데, 그러면서도 그것을 알아차리지도 못할 것이 다라는 것이다.

人間의 將來에 관한 希望이 없다라는 心的狀態는 西洋思想의 가장 기본적인 特徵의 하나와는 두드러진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즉 그 特徵의 하나란, 人類發達에 대한 信念과 正義와 平和의 世界를 창조할 수 있는 人間能力에 대한 信念인 것이다. 이런 희망은 회랍과 로마思想에 그 뿌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舊約聖書에 나오는 豫言者에 의한 救世주의 概念에서도 그 뿌리를 갖고 있다. 歷史에 관한 舊約聖書의 哲理은 歷史에서 人間은 成長하고 表明하고 마침내 人間이 潛在적으로 지니고 있는 것이 되어간다라고 假定한다. 또한 그 哲理은, 人間은 理性의 힘을 발전시키고 충분히 사랑하고, 그리고 그의 同僚와 自然과 調和를 이루면서, 同時に 그의 個性과 그의 統合性을 維持하면서, 世界를 理解할 수 있는 것이라고 假定한다. 世界的 平和와 普遍的

* 社會科學大 行政學科 教授

正義는 人間의 目標인 것이고, 그리고 여하한 錯誤와 罪가 있음에도 不拘하고 마침내 救世主에 의하여 象徵되어 있는 “終末日”(end of days) 이 到來할 것이라는 신념을 豫言者들은 가지고 있다.

豫言者의인 概念은 歷史的인 것이다. 즉 歷史的인 時系內에서 人間에 의하여 實現될 可能性이 있는 完全한 狀態를 의미하는 것이다. 기독교는 이 概念을 超歷史的, 순수한 정신적인 것으로 변형시켰다. 그러면서도 기독교는 도덕적 규범과 정치와의 聯關性을 認定하는 思想을 포기하지는 않았다. 비록 “하느님의 왕국”(Kingdom of God)이 歷史的 時系內에 있지 않다하더라도, 社會的 秩序는 기독교의 정신적 원리에 一致하고 實現하지 않으면 안된 다라고, 中世후기의 기독교 사상가들은 強調하였다. 宗教改革 前後하여 기독교 宗派들은, 이러한 要求들을 보다 끈덕진, 보다 능동적이고 혁명적인 方法으로 강조하였다. 中世가 崩壞됨에 따라 人間의 힘에 대한 感覺과 개인적인 것 뿐만 아니라 社會적인 完成을 위한 希望은 새로운 힘을 취하게 되고 새로운 方法을 택했다.

가장 중요한 것중의 하나는 文藝復興 以來 발달한 새로운 執筆形式으로서, 그의 첫번째 表現은 토마스 무어의 유토피아(Thomas More's Utopia) (글자 뜻대로는 無何處)인데 그 이름은 당시 일반적으로 다른 모든 비슷한 작품에 적용되었던 것이다. 토마스 무어의 유토피아는, 그가 속해있던 사회에 대한 가장 투철한 批判과 그 社會의 不合理性과 不正을, 아마도 完全하지는 않지만 同時代人에게는 不可解라고 여겨지는 다수의 人類問題를 해결하는 社會의 청사진과 결합시켰다. 토마스 무어의 유토피아와 모든 다른 이들을 특징지우는 것은 이런 것이었다. 즉 그네들은 일반적인 용어로는 원리를 말하지 않으나 人間의 가장 깊숙한 갈망에 合致하는 社會에 관하여 具體的으로 詳說하는 상상적 청사진을 提供한다. 豫言者的인 思考와는 對照的으로, 이들 완전한 社會는 “終末日”에 있는 것이 아니나 그러나 時差라기 보다는 차라리 地理的 距離間이지만 — 이미 존재하고 있다.

토마스 무어의 유토피아는 두개의 다른 작품에 의해서 추증되었는데, 그것들은 伊太利人 修道士 캠파넬라의 太陽의 都市(Campanella's City of the Sun)이고 독일인 인본주의자 안드레아(Andreae)의 Christianopolis 이고 후자는 三者中 最新版이다. 유토피아에 관한 三部作에 있어서 見解上이나 原形上 差異가 있다하겠으나 그네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점과 比較한

다면 그런 差異는 僅少한 것이다. 유토피아에 관한 作品들은 그당시부터 계속해서 數百年동안 20世紀 初葉까지 쓰여졌다. 最近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유토피아는, 1888년에 出版된 Edward Bellamy의 Looking Backward (回想錄)이었다. Uncle Tom's Cabin과 Ben Hur를 제쳐 놓고, 그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20세기의 變化點에서 가장 인기있는 책이었으면, 百萬部로 인쇄되었고, 20개 이상의 外國語로 번역되었다. Bellamy의 유토피아는 Whitman, Thoreau와 Emerson의 思想에 表現된 바와 같이 偉大한 美國인의 傳統의 한 部分이다. 그것은 유럽 사회주의자 운동에 있어서 그당시 가장 強力하게 나타난 表現을 만들어낸 생각을 美國인이 脚色한 것이다.

철학적 그리고 인류학적 용어로는 명백히 18세기 啓蒙主義 철학자들과 19세기 사회주의자를 옹호하는 思想家의 著作에 表現되어 있는 人間의 개인적 그리고 社會的 完全可能性에 대한 希望은, 一次大戰以後까지 변하지 않고 남아 있었다. 비록 平和와 民主主義를 위한 투쟁이라는 幼想아래 이뤄졌지만 유럽 列強들의 領土擴張野望 때문에 數百萬名이 死亡한 이 大戰은 상대적으로 짧은 時間內에 希望에 관한 二千年이란 오랜 西歐의 傳統을 파괴하고 그 希望을 失望의 心的狀態로 變形시키려는 경향으로 發展하는 조짐이 되었다. 一次大戰으로 유발된 도덕적 無感覺은 始發에 불과하였다. 다른 사건들이 잇달아 일어났다. 즉 스탈린이 반발하는 국가 獨占資本주의에 의한 사회주의자들의 희망을 背反하는 일, 20세기 말에 야기된 심각한 경제적 위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文化中心地中에서 — 독일 —야만주의의 승리, 30년 동안 스탈린주의자 테러의 광기, 참전국들은 一次大戰까지만해도 존재했던 도덕적 고려마저 喪失하게된 二次大戰, 그리고 無制限民間破壞인데 이것은 Hitler에 의해서 시작되었으며 Hamburg, Dresden 그리고 Tokeyo (東京)과 같은 者市를 完全히 破壞함으로써 계속되었으며 마침내는 원자탄을 일본에 대해서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그때 이래 人種은 보다 큰 危險에 直面해 오고 있다. — 오늘날 존재하는 바와 같은 그리고 놀랄만치 增加하는 比率로 발달되어 가는 熱核武器에 의하여 全人類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들의 文明을 파괴하리라는 危險.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危脅과 그들 자신의 無希望性을 의식적으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 現代武器가 매우 破壞的이라는 바로 그 理由때문에 戰爭은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은 이

렇게 斷言하기도 한다. 즉 6~7천만 미국인의 核戰爭발생 即時 1~2일내에 살해된다 하더라도 前例와 같은 첫번째 衝擊克服 되어진 후에 生命力이 계속되지 아니한다라고 믿어야할 理由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들의 時代에 널리 퍼지고 있는 이 無希望性이라는 새로운 心的狀態가 明白히 되고 사람들의 意識에 자리잡게 되기 전에 오웰의 책은 그 心的狀態를 表現하고 있다는 데 明白히 그 책의 意義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努力에는 오웰 혼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다른 두 작가, 즉 소련인 Zamiatin은 그의 책 “우리들”(We)에서 Aldous Huxley는 그의 “멋진 新世界”(Brave New World)에서, 現在의 心的狀態를 表現했으며 오웰의 作品에서와 같은 方法으로 未來를 警告하였다. 20세기 中葉의 否定的 유토피아라 불리는 이 새로운 三部作은, 16세기와 17세기에 저술된, 앞서 언급된, 적극적 유토피아의 三部作과는 對位法으로 볼 수 있다. 以前의 유토피아들이 中世後期 人間의 自信과 希望의 心的狀態를 表現했던 것처럼, 이 否定的 유토피아들은 現代人間의 無權力性과 無希望性의 心的狀態를 表現했다. 歷史的인 脈絡에서 이 변화처럼 逆說的인 것은 없다. 즉 食糧問題解決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食卓이 마련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歷史的 逆說을 설명하는 것이 이 세계의 否定的 유토피아 모두의 본질적인 점이다.

세계의 부정적 유토피아는 각자간에 주체적으로 그리고 강조점에 있어서 다르다. Zamiatin의 “우리들”은 20年代에 쓰여졌는데, Huxley의 “멋진 新世界” 보다는 “1984”과 더 공통된 特色을 가지고 있다. “우리들”과 “1984”는 둘다 人間은 하나의 구성원이고 모든 個人性이라는 感覺을 喪失하는 完全히 宮僚制度化된 사회를 描寫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는, 이데올로기적이고 心理學的인 操作과 無限定으로 結合된 暴力(Zamiatin의 책에서는 마침내 人間을 心理까지라도 변경하는 腦手術이 추가되고 있다)의 混合物에 의하여 成就된다. Huxley의 作品에서는 人間을 自動化하는 主된 道具란 暴力없이 지낼 수 있는 催眠術의 集團暗示法을 적용하는 것이다. 만일 Huxley의 “멋진 新世界”가 그런 청사진이 기본적인 변화없이 현재의 時流를 따라가기를 계속한다면, 그것은 서구공업계의 發展相을 묘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반면에, Zamiatin의 作品과 오웰의 作品은 보다 더 스탈린주의자와 나치獨裁와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부정적 유토피아 들에게 공통으로

있는 기초적인 의문이 있다. 그 의문이란 哲學的, 人類學的 그리고 心理學的인 의문이고 아마도 또한 宗教的인 의문이라 할 수 있다. 즉 人性은 人間의 自由, 威嚴, 統合, 사랑에 대한 渴望을 잊어버릴 수 있는 方法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인가? 즉, 인간은 그가 人本的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수 있을 것인가?, 혹은 人性은, 非人本的인 社會를 人本的인 社會로 변화시킬려고 試圖함으로써, 기초적인 人間要求를 違背하는데 반동하리라는 力本說을 가질 수 있는나? 오늘날 그렇게 많은 사회과학자들에게 共通的인 心理學的 相對主義의 立場을 이들 세 著者들은 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注目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네들은 人性과 같은 것은 存在하지 않으며, 그리고 人間은 주어진 社會가 그의 教材를 쓰게될 白紙帳에 不遇한 것으로서 태어났다는 假定을 가지고 出發하지 아니했다. 그네들은 人間은 사랑, 정의, 진리, 단결을 위한 강력한 努力을 가지고 있다고 假定하며 이점에 있어서 그네들은 相對主義者들과는 아주 다르다. 사실 그네들이 人間의 努力을 파괴하기에 필요한 것으로 提示하는 手段을 記述함으로써 人間의 努力의 힘과 強度를 확인한다.

Zamiatin의 “우리들”에서 腦葉切除와 비슷한 腦手術은 人性의 人間的인 要求를 除去하기에 필요한 것이다. Huxely의 “용감한 新世界”에서는 人爲的 生物學的 淘汰와 投藥은 필요한 것이고 오웰의 “1984”에서는 拷問과 洗腦의 完全한 無制限 利用이 나타난다. 이들 세 著者중 어느 누구도, 人間안에 있는 人間性을 파괴하는 일이 용이하다라는 생각때문에 非難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세사람은 모두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즉 오늘날 보통 知識이 되고 있는 수단과 기술을 가진다면 그것을 파괴하는 일이 可能하다는 것이다.

Zamiatin의 책과 類似點이 많음에도 不拘하고 오웰의 “1984”는 人間性의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에 독창적으로 공헌한다. 이제 나는 보다더 전문적인 오웰의 概念중 약간에 관하여 言及코자 한다.

1961년과 그다음 5년과 15년 동안에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오웰의 공헌은 그가 독재적 사회와 原子戰사이애 만들어낸 聯關性이다. 原子戰은 40年代 초반에 처음으로 나타났다. 규모가 큰 원자전이 약 10년후에 발생했으며 數百個의 폭탄이 구라파의 소련, 서구, 북아메리카의 工業中心地에 投下되었다. 이 전쟁 후, 모든 나라의 정부들은 戰爭의 繼續은 組織化된 社會와 나아가서 그들 自身の 權力的 終末을 意味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이러한 理由때문에 이제는 더이상 폭탄이 投下되지 아니하고 세계의 現存하는 強大國列強들은 “단순히 원자탄을 生産하기를 계속하고 있으며 列強들이 믿는바, 早晚間 到來할 決定的인 時機에 對應하여 원자를 저장했다.” 事前에 警告하지 아니하고 數秒內에 數億人口를 殺害하는 方法을 發見한다는 것은 支配黨의 目的으로 남는다. 오웰은 “1984”를 熱核武器를 發見하기 以前에 썼으며 50년대에 이미 언급된 바로 그 目的이 이미 달성되었다고 말하는 일은 歷史的인 脚註에 不過하게 되었다. 日本에 投下된 原子彈은, 2·3년내에 90乃至 100%의 나라 인구를 파괴할 수 있는 위력을 가진 熱核武器에 의해서 달성될 수 있는 大量虐殺에 比較해 본다면, 적고 효력이 적은 것처럼 보인다.

오웰의 전쟁에 관한 概念의 重要性은 많은 銳利한 관찰에서 나타나고 있다. 첫째로, 그는 계속적인 武器生産이 없으면 經濟體制가 그 機能을 發揮할 수 없는 그러한 武器生産의 경제적 重要性을 表出하고 있다. 더더구나 그는, 항상 전쟁준비를 하고 있으며, 항상 攻擊當할런지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의 敵手의 完全消滅手段을 발견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社會가 어떻게 발달할 것인가라는 印象的인 그림을 提共하고 있다. 오웰의 그림은, 그것이 流行하는 생각에 對항해서 뚜렷한 理論을 提共한다는 理由로 매우 적절하므로 우리들은, 武器競爭을 계속하고 “安定的”반응제지체를 발전함으로써, 自由와 民主主義를 救出할 수 있다. 이 위로하는 그림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外面하고 있다. 즉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기술적 “進歩”(완전히 5년마다 새로운 무기를 창조하고 10 megaton급 폭탄 대신에 100megaton 또는 1000 megaton의 것을 발전시키게 될 것이다.)가 계속되어감에 따라, 全體社會는 地下에 살도록 강요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熱核彈의 파괴적 위력은 洞窟의 深度보다 항상 크게 남을 것이고, 軍事力이 항상 支配的인 될 것이며 (사실, 法的으로는 아니라 할지라도), 실행할 수 있는 侵略者의 恐怖와 憎惡는 民主的이고 人本主義的인 社會의 基本적 태도를 파괴할 것이라는 사실들이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계속적인 무기경쟁이 熱核戰爭 發勃에 이루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들 사회의 이른바 “民主的이고”, “自由스럽고”, “미국의 전통에 있는” 質을 파괴하기에 이를 것이다. 오웰은, 民主主義가 核戰爭을 준비하는 世界에서 存在하기를 계속할 것이라는 假定에 관한 幼想을 證明하며 그는 매우 상상력이 풍부하게 그리고 훌륭히 證明한다.

또다른 중요한 局面은 오웰이 眞理의 성질에 관하여 記述한 것인데, 그것은 表面上으로는 특히 30年代에 스탈린의 진리에 관하여 取한 태도에 관한 묘사이다. 그러나 오웰의 記述에 있어서 다만 스탈린主義의 다른 고발만을 보는 사람은 그 누구든지 오웰이 분석하는 본질적인 요소를 逸失하게 되는 것이다. 소련이나 중국에서 일어났던 발전보다 속도가 느린것 뿐이지 西歐工業國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발전에 관하여 실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오웰이 제기한 기본적인 의문은 “眞理”와 같은 것이 存在하느냐 與否의 문제이다. 支配黨이 주장하는 것처럼, “眞實”이란 外部에 있는 것은 아니다. “眞實”이란 人間의 마음에 存在하고 그것외의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黨이 진리라고 看做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眞理인 것이다. 만일 진리가 그렇다면, 그러면 人間의 마음을 統制함으로써 黨은 진리를 統制한다. 黨의 首領과 敗北當한 反逆者間의 劇的對話, 즉 도스토예프스키 (Dostoyevsky)의 宗教裁判官과 예수간의 對話를 類推할 價値가 있는 것과 같은 對話에서, 黨의 기본적 원리들이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종교재판과는 對照的으로, 黨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體制가 人間을 보다 행복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을 自稱조차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人間이란 연약하고 겁많은 창조물이므로 自由를 회피하기를 원하고 眞理를 똑바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지도자들은 그들 자신들이 다만 하나의 목적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權力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들에게는 “權力은 手段이 아니고 그것은 目的이다. 그리고 權力이란 無制限한 고통과 수난을 다른 人類에게 짊어지우게하는 力量을 의미한다. 그러면 權力이란 그들에게는 眞實을 창조하는 것이고 眞理를 창조하는 것이다. 오웰이 여기에서 權力 엘리트에게 歸屬시킨 地位는 哲學的 理想主義의 極端의 形式이라고 말해질 수 있으나, “1984”에 나타나 있는 진리와 진실에 관한 概念은, 진리란 黨(The Party)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實用主義의 극단적 形式인 것이다. 미국작가로서 “水晶宮의 生活 (Life in the Crystal Palace)”이란 作品에서 巨大한 미국회사 생활을 민감하고 철저하게 묘사한 바 있는 Alan Harrington은, 眞理에 관한 同時代의 概念을 위해서 卓越한 表現 즉 “움직이기 쉬운 眞理”(mobile truth)라는 것을 考案해냈던 것이다. 만일 내가 모든 경쟁자의 生産品보다 더 좋은 물건을 요구하는 큰회사를 위해서 일한다면 확인할 수 있는 眞實이라는 점에서 그 요구가 正當化되든 말든 관계가 없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특수한 회사에 봉사

하고 있는 限, 이 要求는 “나의” 眞理가 된다는 것이고 나는 그것이 객관적으로 正當한 진리여부를 試問하기를 거부한다. 사실, 만일 내가 나의 직업을 바꾸고 지금까지 나의 경쟁자이었던 회사에 옮기게 된다면, 나는 그 회사의 生産品이 가장 좋고, 주관적으로 말해서, 새로운 진리는 이전의 진리와 똑같이 진실하다는 새로운 진리를 수락할 것이다. 人間이 점점 道具化되어 감에 따라서 진실을 점점 더 그의 자신의 利益과 機能에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변형시키고 있다는 것은, 우리들 자신의 社會가 지니고 있는 특색있고 파괴적인 발전 중의 하나인 것이다. 진리란 多數의 同意에 의해서 증명된다. 즉 “어떻게 多數가 그릇될 수 있으며”, “어떻게 少數가 옳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 슬로우전에 附加된다. 眞實에 관련된 객관적 판단으로서의 진리의 개념이 破滅되어 버린 體制에서 少數에 屬하는 사람은 정신이 이상(異常)하게 되었음에 틀림없다고 믿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것을, 오웰은 아주 明白하게 보여주고 있다.

“1984”에서 지배적인 思考類型을 記述함에 있어서, 오웰은 이미 現代語彙의 한 部分의 되어버린 말, 즉 “二重思考”(double think)라는 말을 창안해 냈다. “二重的 思考란 同時에 사람의 마음속에 두개의 矛盾되는 믿음을 가지며 그들 두개를 모두 받아들이는 힘을 의미한다.…… 이 과정은 의식적이 아니면 않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그것은 충분한 정확성을 가지고 수행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무의식적이 아니면 않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허위와 罪意識을 帶同하게 될 것이다.” 二重思考가 그自身에게는 외래의 것인 반면, 그것은 소련인과 中國人에 의하여 授用되고 있다라는 確言으로 “1984”의 많은 독자들을 유혹시킬 과정이란 확실히 二重思考의 무의식적 局面이다. 그러나 이것은 약간의 例들이 증명하는 바와 같이 하나의 幼想이다. 西歐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自由選舉와 表現의 自由에 근거를 둔 영국과 미국의 體制뿐만 아니라, 남아메리카의 獨裁(적어도 우리들은 그네들이 존재하는 정도로 오래 존재할 것이다)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自由世界”를 말하고 있다. 또한 우리들은 Franco와 Salazar의 독재와 남아프리카, 파키스탄과 Abyssinia에서의 독재를 포함시킨다. 우리가 자유세계를 이야기하는 한편 실제로 우리들은, 소련과 중국에 대항하는 국가를 의미하고 있으며, 말(言語)이 指示하는 限에 있어서, 정치적 자유를 가진 나라를 전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同時에 사람의 마음속에 두개의 矛盾된

믿음을 支持하고 그것들을 受諾하는 또다른 當時의 事例는 軍備武裝에 관한 論議에서 발견될 수 있다. 우리들은, 熱核武器를 構築하는데 相當한 部分의 收入과 精力을 浪費하고 있으며 그 무기들이 폭발하여 3분의 1 또는 2분의 1 또는 大多數 人口(그리고 敵의 人口)를 파괴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 마음의 창문을 닫고 있다. 약간의 武器들은 더 늘린지도 모른다. 그리하여, 오늘날 原子戰略에 관한 가장 영향력있는 著述家의 한사람인 Herman Kahn은 다음과 같이 술회하고 있다. 즉 “...달리 표현하면, 전쟁이란 무서운 것이다. 그것에 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平和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우리들이 오늘날 만들고 있는 一種의 計算法을 가지고 戰爭의 공포와 平和의 威脅을 比較하고 그것이 얼마나 더 나쁜 것인가를 理解하는 일은 타당한 일이다.”

熱核戰爭은 6천만 미국인의 파괴를 뜻할런지 모른다고 Kahn은 가정한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경우에라 할지라도 “나라는 차라리 빠르고 효과적으로 回復할 것이며 大多數 生存者와 그들의 後繼者를 위한 幸福한 生活은 熱核戰爭의 悲劇에 의해서 妨害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發見한다. 이 見解의 主張은 다음과 같다. 즉 ㄱ) 우리들은 平和를 保存하기 위해서 戰爭準備를 하고 있다는 것, ㄴ) 戰爭이 發勃하여 소련인이 우리 인구의 3분의 1을 虐殺하고 또한 우리도 그들에게 같은 짓을(그리고 만일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물론 더할 것이다)한다 하더라도, 사람은 그후에 幸福한 生活을 營爲할 것이라는 것 ㄷ) 戰爭뿐만 아니라 平和까지도 威脅的인 것이고 戰爭이 平和보다 그 얼마나 위협적인 것인가를 조사하는 일은 필요한 것이다. 이런 종류의 話法을 受諾하는 사람은 “냉정하다”고 일컬어질 것이며, 2백만 혹은 6천만이 死亡한다해도 그것은 본질적으로 미국을 그냥두는 것인가라고 의심을 품는 사람은 “냉정하지” 않으며 그러한 파괴의 정치적 그리고 심리적 그리고 도덕적 결과를 지적하는 사람은 “非現實的”이라고 일컬어 진다.

軍備縮少의 문제에 관한 긴 논의는 場을 달리하지 않을 수 없거니와 오웰의 책을 理解하는데 本質的인 點을 강력히 주장하기 위해서 이들 事例들이 提示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그 점이란 즉 “二重思考”는 이미 우리들 주변에 있으며, 未來에서와 獨裁에서 일어날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웰의 논의중에 또다른 중요한 점은 “二重思考”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즉 마음의 성공적 操作으로 사람은 이제는 더이상 자기가 생각하

는 것과 反對되는 의견을 말하지 못하면서도, 그러나 眞理와 反對되는 것을 생각한다. 그리하여 예를들면, 만일 그가 완전히 그의 獨立과 統合을 포기한다면, 만일 그가 그자신을 나라나 黨 혹은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물건으로 경험하게 된다면, 그러면 $2 + 2 = 5$ 이고, 혹은 “奴隸는 自由”이고 그리고 그는 자유로워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더이상 眞理와 虛僞 사이에 判別意識이 存在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이것은 이데올로기에 적용된다. 罪人을 심문한 宗教裁判官들이 그네들은 기독교 사랑의 이름으로 행동한다라고 믿었던 것과 똑같이, 黨은 사회주의자 운동이 原初的으로 支持했던 원리를 拒否하고 비방하고, 黨은 사회주의 이름으로 선정하고 실행한다. 黨의 내용은 그의 反對者와는 반대의 것인데 그러나 사람들은, 이데올로기란 黨의 발표하는 바를 의미한다고 믿는다. 이점에서 오웰은 아주 명료하게 소련 공산주의에 의한 사회주의의 虛構性에 관하여 言及하였으나, 西歐도 역시 같은 虛構性에 罪를 짓고 있다는 것이 附加되지 않으면 안된다. 자유로운 企業心, 個人主義 그리고 理想主義라는 단어들도 大抵 말 (Words)이라고 할 때, 우리들은 우리의 사회를 企業心과 個人主義 그리고 理想主義를 갖는 사회로 提示한다. 우리는 集中的 管理産業社會인데, 본질적으로 관료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진정한 정신적 혹은 종교적 관심에 의하여 약간만이 完化되는 物質主義에 의해서 動作化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二重思考”에 관한 또다른 事例가 있는데 즉, 原子戰略을 논의하는 作家는 거의가 기독교라는 視角에서 殺害는 罪惡으로 간주하거나 殺害當하는 것보다 더 罪惡이라고 하는 事實위에 비틀거리지 아니한다. 독자들은, 만일 그가 그자신의 “二重思考”를 충분히 克服하기만 한다면, 오웰이 “1984”에서 기술한 우리들의 現代社會의 많은 다른 特徵들을 發見할 것이다.

특히 만일, 오웰 자신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그것은 20세기 말에 있어서 적에 관한 그림뿐만 아니라 全人類에 관한 그림이라는 것을 是認한다면 확실히 오웰의 그림은 너무 우울한 것이다. 사람은 이 그림에 대해서 두가지 방법으로 反應할 수 있다. 즉 보다 더 希望을 상실하고 縮念하게 되든지, 혹은 아직도 時間은 있다고 느끼며, 보다 큰 明快性和 보다 큰 용기로 反應하든지. 세계의 否定的인 유포피아는 모두, 人間을 完全히 非人間化하는 것이 可能하나 그러면서도 生命力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사람은 이 假定의 정확성을 의심할런지 모르며, 人間의 人本的인 核心을 파괴하

는 것이 可能해지는 한편, 人間은 이런일을 하게되면 人類의 未來를 파괴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 사람이야 말로 참으로 非人本的이며 活氣缺乏症에 걸린 것이므로 그네들은 서로 파괴하거나 순수한 권태와 걱정으로 죽게 된다. 만일 이 地球上에 “1984”년의 세계가 지배적인 生活形式이 되어간다면, 그것은 광인의 世界를 의미하고 따라서 生存力이 있는 세계가 아니다. (黨 지도자의 눈에 있는 광기의 번득임을 지적함으로써 오웰은 이것을 예리하게 지적한다) 오웰이나 Huxley 또는 Zamiatin이 이 精神異常의 世界가 到來하게 되어 있다고 주장하기를 원치안했다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반대로 西洋文化의 바로 그 뿌리에 있는 휴머니즘과 權威에 대한 정신을 復興시키는데 우리들이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면 우리들이 어디로 향하여 進運할 것인가를 보임으로서 警告의 종소리를 울리게 하는것이, 매우 명백한 그네들의 意圖였다. 오웰뿐만 아니라 다른 두 저자들도 人間이 人間처럼 행동하는 기계를 造成하며 기계처럼 움직이는 人間을 발달시키는 새로운 형식의 管理產業主義는, 人間이 事物로 변형되고 生産과 消費過程에서 附加物이 되는 非人間化와 완전 疏外時代로 傳導된다는 것을 간략하게 暗示하고 있다. 세 저자 모두가, 이런 위험이 中國人인 異形의 소련공산주의에 존재할 뿐만 아니라 生産과 組織의 現代의 形態에 固有하며 상대적으로 여러가지 이데올로기와는 獨立해 있는 위험이라는 것을 暗示한다. 다른 否定的 유토피아 저자처럼, 오웰도 病에 관한 豫言者는 아니다. 그는 우리를 경고하고 각성시키고 싶은 것이다. 그는 아직도 희망을 갖는다 — 그러나 西歐社會의 初期段階에 있던 유토피아에 관한 저자들과 對比해 볼 때, 그의 희망은 절망적인 것이다. “1984”이 우리들을 가르치고 있거니와 그 희망은 오늘날 우리들이 直面하고 있는 危險 즉 個性의 사랑, 批判的 思考方式의 흔적을 상실하면서도 “二重思考”때문에 그것을 알아 차리지 못하는 기계와 같이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으로 구성된 사회의 危險을 是認함으로써만이 그 希望은 實現될 수 있는 것이다. 오웰의 책과 같은 책들은 強力한 警告狀이고, 만일 독자가 “1984”는 스탈린주의자의 變行을 달리 記述한 것이라고 멋부리며 해석하며, 만일 독자가 그것이 또한 우리들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그 作品은 가장 不幸한 것이 되어버릴 것이다.

이데올로기 研究論叢

(Erich Fromm, "Afterword on 1984", Irving Howe, Orwell's
Nineteen Eighty - Four, New York : Harcourt, Brace & World
Inc. , 1963, pp·204 - 210 을 번역한 것임)